

國際穀物需給과 美日間 農産物 去來動向

尹 皓 燮*

- I. 序
- II. 世界의 穀物需給과 去來秩序
- III. 美國의 農業動向
- IV. 日本의 農業動向
- V. 美·日間의 農産物 貿易關係
- VI. 要約 및 結論

I. 序

食糧은 歷史的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장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상품이였다. 따라서 食糧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諸問題들은 제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을 國家(經濟)의 근본이라 하였으며, 또한 「民而食爲天」이라 하여 國民食生活의 충족을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인 문제로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農業人口가 全人口의 절반 이상이고 農業이 國民總生産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農業國家였다. 그러나 輸出主導型 經濟成長으로 특징지어지는 5차에 걸친 經濟開發 計劃의 추진 결과 穀物需 要的의 과반수 이상을 수입하는, 즉 穀物自給度가

50% 이하로 떨어진 食糧輸入國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世界穀物經濟 또는 穀物市場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國際穀物經濟가 심한 마찰을 빚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의 世界穀物需給과 함께 美國-日本間의 農産物 去來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 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世界의 穀物需給과 去來秩序

世界穀物生産量은 1960년대 및 70년대의 증가 추세에 뒤이어 8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世界穀物生産이 장기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4/85년 이후 연속 3년간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6/87년의 世界穀物生産量은 약 16.9億%으로써 1960/61년의 8.5億%과 비교하면 약 2배의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매년 평균 약 2.6%씩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生産增加 趨勢는 주요 穀物生産地域에 커다란 기상 이변이 나타나지 않는한 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新技術의 導入 및

* 首席研究員.

表 1 世界穀物需給動向

單位：百萬%

年度 ¹⁾	生産	消費	去來	在庫
1960/61	846	832	72	199
1966/67	1,006	980	104	169
1971/72	1,197	1,179	110	183
1976/77	1,363	1,309	158	204
1980/81	1,447	1,461	215	196
1984/85	1,645	1,593	219	256
1985/86	1,665	1,575	181	346
1986/87 ²⁾	1,686	1,639	190	392

註：¹⁾ 貿易年度임

²⁾ 暫定値임

資料：Wisner, Robert and Tehereh Nourbakhsh, "World Food Trade and U.S. Agriculture, 1960~86," The World Food Institute of Iowa State University, 1987.

기존 技術의 보급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美國의 遊休耕作地 擴大 및 資源保存 계획 등에 의한 美國의 減産政策을 고려할 때 世界穀物生産擴大의 潛在能力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世界穀物消費(利用)도 生産側面과 비슷하게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增加趨勢를 보여 주고 있다. 즉 1986/87년도의 消費量은 약 16.4억%으로서 1960/61년의 8.3억%과 비교하면 약 2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消費量의 꾸준한 增加趨勢는 세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經濟成長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生産과 消費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80년대에 들어와(특히 지난 3년간) 生産量이 消費量을 계속 초과함으로써 在庫量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였다. 1986/87년의 世界穀物在 庫量은 약 3.9億%으로 1980/81년의 약 2.0億%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全體穀物消費量과 대비한 재고 수준도 同期間 동안 13.4%에서 23.9%로 증가하였다.

한편, 世界穀物去來量은 1986/87년의 경우 前年對比 5% 정도 증가하였지마는 80년대 들어와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去來量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美國을 비롯한 주요 輸出國의 生産者 및 農企業 그리고 輸出業者 등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産業構造의 再編이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去來量의 침체와 함께 在庫累增 현상으로 인한 價格의 하락으로 主要 輸出國의 政策費用은 계속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農産物의 輸出國이 美國, 캐나다, 호주 및 EC 등 世界經濟를 주도하는 先進國이므로 國際經濟秩序에서 農産物 貿易이 갖는 비중도 증가할 것이다.

國際農産物 去來를 經濟圈別로 나누어 보면 先進國은 輸出, 그리고 그 이외의 經濟圈은 수입으로 대별된다. 穀物去來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도 기상변화 등 經濟外的 요인이 중요한 변수

表 2 經濟圈別 穀物去來動向

單位：百萬%

經濟圈	1969~71			1977~79			1980		
	輸出	輸入	純輸出	輸出	輸入	純輸出	輸出	輸入	純輸出
先進國 ¹⁾	77.6	52.1	25.5	148.4	63.1	85.3	194.3	74.4	119.9
共產圈 ²⁾	12.4	17.6	-5.2	9.3	50.0	-40.7	7.7	69.2	-61.5
開發途上國 ³⁾	17.6	24.2	-6.6	26.1	49.2	-23.1	17.4	53.1	-35.7
低所得國家 ⁴⁾	2.1	10.9	-8.8	2.8	11.7	-8.9	2.8	14.9	-12.1

註 ¹⁾ 美國, 캐나다, 호주, 佛蘭西, 日本 등

²⁾ 蘇聯, 中共 및 東歐諸國

³⁾ 韓國, 태국, 알제틴, 브라질, 멕시코, 南阿共 등

⁴⁾ 印度, 인도네시아 등.

資料：Johnson D. Gale, "The World Food Situation: Recent and Perspective Developments", in 「The Role of Markets in the World Food Economy」, ed. by D.G. Johnson and G.E. Schuh, Westview Press, 1983. pp.29의 Table 4에 의해 作成

이지마는, 先進經濟圈의 輸出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共產圈 및 開發途上國의 輸入은 꾸준한 增加趨勢에 있다. 이를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先進經濟圈에서의 穀物의 食用 및 飼料用 消費는 飽和내지 飽和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美國의 飼料穀物消費는 70년대 초의 穀物 파동시의 소비 수준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그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西歐諸國에서는 완만한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先進經濟圈과 비교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亞細亞(日本 제외) 및 아프리카의 諸國에서는 穀物消費가 世界平均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특히 飼料穀物의 消費增加趨勢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農産物去來 유형과 관련하여 各經濟圈 또는 각국의 사정을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세계 최대의 農産物 輸出國인 美國의 경우를 보면, 過剩供給 및 在庫累增,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의 감소와 함께 農家의 財務構造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재고 증가에 따른 政策費用의 증가를 축소하고 世界農産物 시장에서의 自國 몫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즉, 國內 支持價格의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在庫 증가에 따른 政策費用의 減少는 물론 輸出價格도 하락함으로써 輸出市場에서 잃었던 自國 몫의 회복을 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輸出促進計劃을 소련 및 중공 등을 포함하는 對共產圈 交易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輸出促進計劃은 국내적으로 볼 때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 또한 사실이며, 따라서 EC를 비롯한 기타 輸出競爭國들에게도 정책적인 費用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輸出補助金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결과 世界農産物貿易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가

능성과 함께, GATT 내에서의 農産物貿易에 관한 討議의 優先順位가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美國과 農産物去來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EC를 살펴보면, EC의 輸出努力과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86년 EC에 가입함으로써 內部市場의 擴大를 이루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통적인 美農産物輸入國이었으므로 美-EC間마찰은 심화되었다. 여기서 美-EC間의 論爭을 살펴보면, 첫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加入으로 美農産物輸出市場縮小, 둘째, 제 3세계에 대한 EC의 옥수수 輸出增大 노력, 셋째, 美-EC間 非農産物貿易에서 미국의 막대한 貿易赤字 등을 들 수 있다. 上記 두 나라가 EC에 가입함으로써 나타날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EC 측면에서는 穀物의 供給過剩 상태에서 穀物輸入國의 가입을 통하여 內部市場 확대에 의한 需要增大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측에 나타날 효과로는, 전통적인 美國 農産物輸入國이 EC에 가입 후 EC의 穀物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됨으로써 輸出市場의 減少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美國의 穀物購入時 關稅를 부과했던 上記 두 나라가 EC加入후 賦課金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國內 農産物價格의 상승과 함께 國內 生産의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美國 農産物의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화되고 있는 農産物去來를 둘러싼 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兩經濟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加入으로 인한 共同市場 확대의 대가로 上記 양국의 미국으로부터 穀物導入 확대에 暫定合意하였다. 즉 스페인이 美國에서 도입하는 穀物에 낮은 賦課金を 부과하는 것과 포르투갈의 EC내에서의 義務穀物 導入量의 철폐 등에 EC가 동의하였다.

소련은 주지하다시피 農産物의 대량 輸入國

이지만, 이와 함께 일시 大量購入으로 國際穀物市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소련의 穀物生産성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生産 또한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蘇聯의 海外農産物 購買體系는 비교적 短期間內에 輸入決定을 행함으로써 國際穀物市場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생산성 향상 속도 및 氣象變化와 함께 購買 체계까지도 國際穀物市場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石油輸出國(OPEC)의 石油輸出 증대는 그 나라들의 經濟成長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農産物 去來와도 밀접한 函數關係에 있다. 즉, OPEC의 石油輸出增大는 外換保有의 증대와 함께 穀物을 포함한 農加工食品의 購買力 增大를 가져온다. 미국의 옥수수輸出의 約 1/3, 그리고 밀輸出의 約 1/4이 石油輸出國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國際石油市場에서의 石油 去來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貨로 표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의 Dollar 貨의 상대적인 評價切下는 油價 하락에 영향을 주어 石油輸出國의 購買力 감소에 따른 農産物 需要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農産物去來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開發途上國의 外債 문제를 들 수 있다. 브라질, 알제틴, 인도네시아 등 外債 부담이 큰 나라의 당면문제로서 輸出增大 및 輸入抑制를 들 수 있는바, 이들 나라의 수출 중에서 農産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外債國家에서는 食糧 不足下에서도 외채 압박으로 인하여 農産物 구입 여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 이외에도 일부 食糧輸入國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增産의 결과, 食糧自給은 물론 輸出 잠재성도 나타나고 있는바, 이 모두가 國際農産物 去

來에 直間接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各國의 農産物去來를 둘러싼 동향과 함께 이제는 經濟成長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의 거래 움직임을 알아보아야 할 차례이다. 世界經濟成長은 70년대의 成長率과 비교할 때 향후 당분간은 둔화될 전망이다. 최근 國際換率市場에서의 換率 불안정 및 株價 하락을 둘러싼 美國—日本—西歐諸國間의 財政 및 金融政策上的 이견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며, 또한 일부 開發途上國들의 가증되는 外債 압력 문제가 또한 經濟成長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의 둔화에 따른 소득 증가율의 감소 및 石油輸出國 등의 購買力 감소 등으로 農産物需要의 增加率 역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향후의 農産物市場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다음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美國의 支持價格 下落에 따른 國際農産物價格의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또한 재고 수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둘째, 價格下落 속에서 輸出國間의 競爭摩擦 解消方案은?

셋째, 價格下落 속에서 食糧輸入國들의 自給率 提高 능력은?

넷째, 農産物 貿易의 자유화를 향한 GATT 내에서의 협상과 기대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다섯째, 世界穀物の 供給過剩 속에서 食糧 및 영양 부족에 허덕이는 일부 지역의 人類를 위한 國際協商 노력은?

이러한 世界 農産物貿易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直間接으로 영향이 올 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世界 各國 또는 經濟圈의 動向을 모두 분석하기 보다는 오히

러 현재 世界 農産物貿易 질서에 새로운 흐름을 열고 있으며, 또한 우리 農産物 輸入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웃에 위치하며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日本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Ⅲ. 美國의 農業動向

1980년대 들어 美國의 農政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만성적인 過剩生産 및 이에 따른 在庫累増의 해소, 둘째, 國際農産物市場에서의 美國 輸出 비중의 감소, 셋째, 農家の 過剩 투자에서 오는 농가의 財務構造의 악화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밀, 옥수수, 대두, 쌀 및 酪農製品 등의 供給은 과잉되어 가면서 농가의 財務構造 악화로 일부 農家は 파산했고, 또한 파산 위험에 처한 農家の 수는 증가하기만 하였다. 財務構造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農家들도 土地價格의 하락으로 負債規模가 資産價値를 초과했다는 사실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過剩生産의 축소, 잃어버린 輸出市場의 회복, 악화 일로에 있는 農家の 財務構造改善, 農業部門에 대한 聯邦政府 지출의 일정 수준 유지 또는 축소 등이 政治·經濟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諸問題를 해결코자 「1985년 食糧安保法」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는 잃어버린 農産物 輸出市場을 회복함으로써 향후 美國農業의 번영을 재현시키는 것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각종 規制措置의 완화, 聯邦政府 補助金 지출의 축소 및 수출 촉진을 위한 競争價格의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美國 農産物 生産者の 소득을 보장해 주었던

두 가지 價格體系, 즉 目標價格과 貸付價格을 1990년까지 계속 하향 조정함으로써 聯邦政府支出의 축소 및 農産物價格의 하락을 통하여 輸出 競争力提高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支持價格의 하락이 農産物 재고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만큼 輸出需要를 찾지 못한다면 遊休 耕地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供給의 축소를 이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農産物價格의 하향적인 유도는 美國 및 기타 農産物輸出國의 生産意慾減退를 통한 減産效果와 함께 農産物 輸入國의 消費增大效果를 통하여 國際市場에서 적절한 需給均衡을 찾코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농정 변화가 輸出競争國에 주는 效果는 相對輸出國의 輸出價格下落 유도 및 국내 支持價格이 下向趨勢에 있는 國際價格보다 높은 나라에게는 政府支出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農産物貿易의 自由化가 제창되는 가운데 輸出競争國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국내 支持價格을 낮추거나 耕作地를 축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 변화가 農産物 輸入國에 주는 效果는 첫째, 輸入價格의 하락으로 인한 輸入增大 유발로 食糧自給 제고 노력에 逆作用을 하거나 또는 國內生産者 보호 및 自給率提高를 위한 輸入制限 등 새로운 조치의 출현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農産物 輸出國間에 輸出補助金を 증대시킬 가능성과 함께 國際價格 하락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며 輸入國들 사이에서는 수입 규제의 강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농정의 변화가 갖고 온 효과를 밀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세계의 밀 輸出量(또는 去來量)은 86/87년에 前年對比 약 5.7百萬% (또는 6.7%)가 증가하였다. 이는 中共 등에서 기상이 나쁘고 開發途上國에서

表 3 世界 밀 去來量趨勢

單位：百萬%

	78/79	79/80	80/81	81/82	82/83	83/84	84/85	85/86	86/87
世界의 輸出量 (A)	72.0	86.0	94.1	101.3	98.7	102.0	107.0	84.9	90.6
美國의 輸出量 (B)	32.5	37.4	41.2	48.2	41.1	38.9	38.8	24.9	27.9
B/A (%)	45.1	43.5	43.8	47.6	41.6	38.1	36.3	29.3	30.8

資料：Wisner, Robert and Tehereh, Nourbakhsh, "World Food Trade and U.S. Agriculture, 1960~1986", The World Food Institute of Iowa State University, 1987.

의 輸入需要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세계의 밀交易量은 70년대 후반 이후 80년대초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정체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밀去來量에서 美國 輸出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대 후반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진다. 輸出物量 면에서 볼 때는 81/82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84/85년까지는 정체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85/86년의 미국의 밀輸出量은 24.9百萬%으로서 4년 전과 비교하여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86/87년의 미국의 밀수출은 물량 면에서나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나 모두 增加趨勢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美國의 輸出 증대를 위한 支持價格의 하락 및 補助金 지불 등 1985년 食糧安保法에 나타난 美農政의 획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함께 최근의 Dollar貨의 상대적인 評價切下는 美國 밀輸出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80년대 들어와 잃었던 輸出市場의 회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歐州 및 호주 등 기타 밀輸出國의 國際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輸出國間에 市場確保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밀輸出을 둘러싼 상황을 각국의 收穫面積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美國은 1983/84년에 PIK(Payment-in-Kind) 計劃으로 밀收穫面積이

表 4 主要 밀輸出國의 收穫面積

單位：百萬 ha

	70/71	75/76	81/82	83/84	84/85	85/86	86/87
美 國	17.7	28.1	32.8	24.8	27.1	26.2	24.6
카 나 다	5.1	9.1	12.4	13.7	13.2	13.7	14.2
E C	17.0	15.4	16.4	17.0	17.1	16.2	16.7
호 주	6.5	8.6	11.9	12.9	12.1	11.7	11.3
알 겐 틴	3.7	5.3	5.9	6.9	6.0	5.3	5.1

資料：Wisner, Robert and Tehereh, Nourbakhsh, "World Food Trade and U.S. Agriculture, 1960~1986", The World Food Institute of Iowa State University, 1987.

前年對比 23%나 감소하였으나 캐나다, 西歐 및 호주 등 주요 수출국들은 오히려 수확 면적을 증대시켰다. 즉, 美國은 遊休耕地 확대를 통하여 생산 감소를 시도한 반면에 경쟁국들은 생산 증대를 통하여 輸出市場에서의 自國 몫을 증대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86/87년의 미국의 수확 면적은 83/84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향후의 在庫 수준에 따라 1990년까지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옥수수 등 다른 곡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世界穀物市場에서의 美國의 역할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世界穀物市場에서 전통적인 供給管理者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競爭國들이 輸出 촉진과 함께 그들의 在庫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美國의 輸出價格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美國은 최종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전통적으로 하

여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競爭者로서의 役割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의 輸出市場 회복은 美國의 支持價格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 회복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의 競爭國들이 美國과 보조를 맞추어 생산을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낮은 가격하에서라도 경쟁 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EC의 경우 輸出補助金 제도의 再評價는 할지언정 生産 감축을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輸出額 측면에서 살펴볼 때, 價格下落으로 인하여 輸出物量은 증가하겠지만 輸出額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美國의 農産物輸出은 1981년 US\$ 440億에서 1986년에는 \$ 260億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輸出額의 감소는 농민 및 농업과 관련된 각종 이익단체의 불만을 누적시키고, 따라서 國際貿易에서 不公正 貿易去來에 관한 보복조치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輸出市場의 회복과 함께 미국 농업이 당면한 또다른 문제인 過剩生産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1986년산 곡물부터 支持價格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었으며 이와함께 과중한 在庫分을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價格下落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植付面積 감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政策介入을 병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농민이 植付面積의 감소를 결정함에 있어 國際價格을 고려토록 유도하거나 또는 國內消費分에 한하여 Deficiency Payment 를 지불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추세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된다면 약 20만 가구의 商業農이 經營規模를 축소하거나 이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할 농민들은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 결과 감소된 수의 農家가 더욱 큰 經營規模로 영농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향후의 미국 농업은 고도로 資本集約的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IV. 日本의 農業動向

日本農業의 過保護 현상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나 여기서는 이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은 2차대전 이후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경험하였다. 이는 물론 전쟁 기간 동안의 막대한 시설 피해와 함께 戰後의 농업 투자의 미진 등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食糧의 安定的 供給을 이룩하기 위하여 農地改革 등 食糧增産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 결과 食糧生産은 증대되었다. 그러나 價格下落이 뒤따르고 所得問題가 제시됨으로써 農政의 초점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소득증대로 바뀌었다. 1961년 農業基本法이 제정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構造改善 계획을 도입하였으며 所得彈力性이 큰 畜産 및 靑果類의 增産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日本經濟가 예상보다 빠르게 高度成長을 이룩함으로써 農業部門에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높은 수준의 價格支持 制度는 農家收入의 증대에 기여하였으나, 한편으로는 農業保護度도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農産物 市場의 開放化 속도도 遲滯되었다. 즉, 日本經濟의 開放化와 관련한 1960년의 「貿易 및 外換自由化計劃의 基本指針」에서 農業部門의 開放도 시도하였

는바, 이는 이 당시까지 農業部門의 保護度가 비교적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있어서 同年에 121개의 農產物 輸入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農產物市場의 自由化 속도는 크게 떨어졌으며, 따라서 輸出國으로부터 市場開放化의 요청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로, 農地價格의 상승 문제이다. 高度經濟成長으로 인한 道路, 住宅 등 새로운 建設需要의 증가는 農地價格의 상승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農地價格의 상승은 경영 규모의 확대 및 農業構造改善計劃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小農은 地價上昇으로 인한 期待利益으로 營農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農業機械化는 經營規模를 확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兼業營農을 가능케 함으로써 專業農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세번째로는 米穀의 1인당 消費量은 60년대 후반 이후 減少趨勢를 나타내는 등 食品消費構造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生産者 價格의 高水準 유지는 生産調整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곡인 米穀의 過剩生産 및 在庫累增 현상까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畜利用再編對策 등의 도입과 함께 補助金을 지불하면서 수출하는 경우로 발전되었다.

畜利用再編 대책의 主內容은 밀, 옥수수, 채소 등을 畜에 植付함으로써 증산을 유도하는 것인바, 70년대초의 세계적인 穀物 파동을 겪으면서 食糧自給論이 우세할 때 상당한 호응도를 얻었다. 그러나 이 計劃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菜蔬類의 경우 米穀과는 대체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실제로 있어서 해외로부터 輸入이 없는 菜蔬類를 植付時 過剩生産 및 이에 따른 가격의 폭락 등이 예상돼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小

麥 및 大豆 등의 植付問題인데, 輸入量에 비하여 代替作物植付로 인한 生産量이 매우 적음으로써 食糧自給의 問題와 연계시켜 생각해 볼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의 價格構造下에서 米穀이 가장 이익이 큰 경제적인 작물이므로, 米穀이 아닌 기타 代替作物의 植付를 위해서는 支持價格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國內支持價格 수준을 높이면 保護度의 증가와 함께 해외로부터 國內市場開放의 요구가 강화될 것은 自明한 일이기 때문이다.

日本農業의 여건 하에서 국내 및 국제 農產物價格의 현격한 차이를 축소하면서 國內市場開放 압력에 대처하고, 이와 동시에 日本農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가능한 政策手段이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려될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가 輸入農產物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 조정하면서 輸入割當量을 國內生産과 연계시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일 것이다. 日本의 關稅率은 歐美先進國과 비교하여 보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關稅率에 관한한 日本은 農產物 輸出國인 先進國들로부터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農產物市場開放과 관련하여 日本 측의 가능한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0년대 초 이래 農業基本法이 日本農政의 根柢를 이루어왔으나 국내 및 국제적인 환경은 많이 변화했다. 국내적으로 볼 때 經營規模의 획기적인 증대없이도 農業基本法의 主要目標인 所得目標이 달성되었으며 農家の 農外就業機會가 급격히 증가했다. 즉, 農家所得은 都市家計所得보다 높으며 農家所得中 農外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현재 약 80% 수준에 도달해 있다. 食糧安保의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며 自給率提高는 賦存資源의 여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는 상황이다. 여기서 日本의 食品需給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日本의 1인당 1일 평균 食品熱量 소비량은 약 2,600kcal로서 탄수화물의 소비가 60% 이상이며 단백질은 15% 미만으로서 西歐先進國과 비교할 때 단백질의 구성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日本의 일부 營養學者들은 이러한 食品消費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消費는 계속 감소하고 畜産物 및 酪農製品의 消費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生産(및 供給) 면에서 볼 때 米穀은 供給 과잉을 제한하기 위해 오히려 生産을 축소시키는 단계이며, 靑果類는 自給自足하고 있으나 일부 畜産物은 소득증가로 인하여 輸入需要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밀, 옥수수, 大豆 등은 自給 수준이 10% 내외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日本農業은 외부로부터 輸入自由化 또는 國內市場의 開放化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國內外價格의 차이를 축소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협소한 土地賦存資源下에서 生産政策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米穀生産의 經營規模를 현재보다 10배로 증대시킬 때 生産費의 半減이 가능할 것이라든가, 또는 畜産 經營規模를 현재의 2배로 할 때 生産費의 1/4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이를 위하여 農地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이 완화되었으며, 經營規模 확대를 위한 集團農의 활성화와 함께 農機械 등 施設財購入에 대한 金融支援 확대 방안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農家의 高齡化 趨勢는 결국 脫農이나 經營規模 축소 등으로 나타날 것인바, 이들 農家の 土地를 專業農이나 規模擴大를 원하는 農家가 구매토록함으로써 經營規模 확대를 도모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은 計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0년경에 10~15ha 규모의 經營規模가 이룩된다면 農業保護率을 유럽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생산비 감소를 위한 각종 노력은 생산성 증대의 문제로 연결되는 바, 이를 위한 經營規模 확대 방안 등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農産物價格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美·日間 農産物貿易 마찰의 초점이 되는 국내의 가격 차이의 축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農産物 價格支持 수준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나,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향후 소비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品目の 경우 價格의 상향 조정은 회피하는 방안, 支持價格 결정시 생산성 향상분을 고려하는 방안 및 專業農의 生産費를 중심으로 支持價格을 결정하는 방안들이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主所得源이 農外就業인 農家の 生産費가 고려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小農의 土地가 規模擴大를 원하는 農家로 移轉되는 것을 촉진함과 아울러 構造改善 계획을 위한 政府費用의 축소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과거의 價格支持政策이 經營規模와 연계되지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높은 支持價格下에서 小農의 離農은 적었다는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 農家戶當 平均經營規模는 1965년 1.06ha에서 1985년에 1.23ha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美·日間の 貿易去來에서 나타난 마찰과 함께 1985년 下半期 이후부터 나타난 日本엔貨의 美國 Dollar貨에 대한 급격한 評價切上은 日本農業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의 換率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輸入農産物의 國

內價格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消費者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國內 農産物市場과 輸入農産物市場의 乖離로 인하여 消費者價格의 변화가 기대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農産物價格支持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農業生産 構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에서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農産物 거래의 문제를 해결코자 日本農業의 開放化를 위한 論理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前川 Commission」의 「前川 報告」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農業後繼者에 초점을 둔 構造改善計劃의 推進, 國內外 價格差가 큰 農産物의 輸入擴大 및 輸入制限農産物 등 일부 農産物市場의 점진적 개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前川 Commission」의 建議가 실현된다면 이는 日本農政의 轉換點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V. 美·日間の 農産物 貿易關係

최근의 農産物貿易 동향은 1986年 9月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열렸던 GATT 會議의 內容에서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市場開放(또는 接近) 및 輸出競争에 관한 규칙의 강화, 新規課稅의 賦課禁止 및 農産物保護(및 保護體系)를 축소함으로써 農産物貿易의 자유화를 향한 새로운 秩序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 특히, 農産物貿易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는 국내 價格支持政策 등 국내 農業政策이라고 보고 각국의 국내 農政을 協商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국제 農産物去來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美·EC 間의 協商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서

는 美·日의 協商과 전망을 살펴보면 초점을 두고자 한다.

美·日間の 農産物去來는 전통적으로 美國은 輸出하고 日本은 輸入하는 입장이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國際 農産物 去來量의 增加率이 감소한 80년대에 들어와서 美國(및 기타 農産物輸出國)의 관심은 日本國內市場의 확대 가능성에 있었다. 이는 日本의 食品消費構造를 西歐와 비교할 때 動物性食品에서 얻는 營養攝取量이 아직도 西歐諸國의 반밖에 안된다는 사실에서 畜産物 需要의 증가가 아직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둘째, 日本의 農業保護 수준이 日本農業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과 함께 輸入制限 장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미국의 農産物價格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輸入割當 및 賦課金 등 각종 제도적인 輸入制限 장벽으로 인하여 日本 國內市場이 國際市場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日本 製造業 製品의 美國 市場 진출은 매우 용이하고 자유로운 결과, 日本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貿易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요약될 수 있는 美·日間の 農産物 貿易 關係를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美·日間の 農産物去來에 관한 마찰은 日本 國內市場의 확대 가능성의 바탕 위에서 美國 農産物의 日本內輸入價格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日本 國內市場이 경직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예를들면, 日本엔貨에 대한 美國의 Dollar 貨가 지난 2년간 약 50% 정도 評價切下됨으로써 日本의 飼料穀物의 輸入價格이 50% 정도 하락되고 따라서 日本의 飼料穀物 도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측의 견해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예상을 빗나갈 정도로

수입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물론 肉類輸入의 增大가 飼料穀物輸入의 增加를 둔화시켰다 하더라도, 飼料輸入의 獨占權을 행사하고 있는 協同組合이 輸入費用의 減少分中 일부만을 농민에게 이전시켰으로써 飼料費의 하락分은 輸入費用의 下落分보다 적었다. 따라서 畜産物 生産費의 하락도 기대 이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生産費의 少幅 下落은 畜産 및 酪農製品 供給價格의 下落을 유도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도 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은 輸入飼料價格의 減少分을 生産者에게 충분히 전가함으로써 생산비를 낮춤과 동시에 畜産物 價格의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 측은 생산비 하락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生産者의 利潤은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日本의 輸入割當制와 關稅에 대해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日本의 輸入割當制는 國內價格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에서, 바꾸어 말하면 國內消費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輸入割當制下에서 관리되고 있는 農産物의 導入時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高率의 關稅制度下에서는 輸入割當制를 폐지하여도 輸入量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輸入割當制를 廢止하고 輸入商品의 關稅收入을 生産者에게 Deficiency Payment Form으로 지불함으로써 生産者도 보호하고 國內消費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日本은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輸入割當量도 조금씩 증가시켜 왔지만 아직도 양측에는 커다란 견해 차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輸入을 둘러싸고 양측은 견해를 크게 달리하고 있는데, 日本측의 주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현재의 輸入割當制下에서 日本은 미국으로부터의 輸入分을 증대시켰으로써 美國産 쇠고기輸入에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에 대한 輸入割當制의 폐지는 미국으로부터 飼料輸入은 감소되고 호주 등 제 3국으로부터 쇠고기輸入이 증대됨으로써 제 3국이 受惠者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양적인 규제 이외에도 품질 규격을 통한 輸入 장벽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FAO 등에 의해 인가된 食品添加劑가 日本에서는 허용안되는 경우를 들어 미국측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국간의 農産物 거래를 둘러싼 마찰은 급기야는 日本에서 主穀으로서 聖品視해오던 米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70년대 이래 日本의 米穀生産者 價格이 國際價보다 3배 이상 비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85년 이후 日本엔貨의 상대적인 評價切上과 미국 支持價格의 하락으로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年 9월 미국의 搗精業者協會가 日本의 糧政으로 인하여 美國의 米穀栽培農家가 US \$ 17億 이상의 판매 감소를 경험했다고 미국의 通商代表部에 提訴하였다. 이 안건이 美通商代表部에 의해 기각되었다고는 해도, 自由貿易을 제한하는 國內農政自體가 뉴라운드 (new round)에서는 協商對象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논쟁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측이 米穀까지 協商對象으로 하자는 데에는 실질적인 면보다는 상징적인 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즉, 美國의 米穀生産者支持價格이 國際價보다 높은 상황에서 日本이 米穀市場을 개방한다고 하여도 미국으로부터의 輸入보다는 오히려 태국 등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측의 견해는 제 3국의 輸出

증가로 인한 그 나라의 購買力의 增加가 결국은 미국의 다른 상품의 輸入 증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일본 측에서 볼 때, 米穀市場의 開放에 대한 반발은 무척 크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전체로서의 利益과 함께 日本農業이 지향하는 構造改善作業을 용이하게 誘導할 수 있다는 견해 위에서 保護率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밀의 경우 日本의 國內生産者價格은 물론 食糧廳의 販賣價格도 國際價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미국측의 견해는 食糧廳의 販賣價格이 국제 수준으로 下向調整된다면 밀 輸入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의 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관계로 실제 輸入의 증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兩國間의 견해차에 초점이 되는 日本國內市場의 潜在可能性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 飼料穀物의 輸入은 증가하고 있으나 增加率은 둔화되고 大豆의 輸入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등 農産物輸入의 증가가 둔화됨으로써 農産物輸入市場의 飽和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肉類 및 酪農製品 소비의 증가 추세도 둔화되었으며 1인당 所得增加率을 계속 앞질렀던 1인당 肉類消費量의 증가율도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所得增加率보다 적어지고 있다. 日本農産物輸入需要의 크기는 飼料 및 畜産業의 성장 속도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따라서 肉類 및 酪農製品消費의 增加速度가 農産物輸入의 決定要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日本의 1인당 動物性食品의 消費量은 美州나 西歐諸國의 1/2수준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日本의 食生活消費類型이 예외일지는 모르나, 통상 總熱量消費量中 畜産物 비중이 40% 수준일 때 畜産物需要의 증

대가 멈춘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日本의 畜産物消費 增大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따라서 畜産 및 酪農業의 확대 가능성과 함께 農産物 輸入의 확대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畜産業의 확대 가능성은 世界農産物市場의 움직임 및 日本農業政策의 향후 방향과 함께 所得增加速度 및 畜産業의 生産性 向上速度에 의해 좌우될 것임은 明白한 사실일 것이다.

上記에서 보았듯이 美·日 두 나라의 農産物 貿易 관계는 日本의 지극히 엄격한 農業(및 貿易)政策과 이로 인한 貿易擦摩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 農産物 輸入은 증가했고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인구를 자체적으로 부양하기에는 토지 자원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한 生産性의 낙후 및 高生産費 현상과 함께 食生活의 변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두 나라는 계속 협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확실히 補完關係를 유지할 것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Ⅵ. 要約 및 結論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世界穀物市場은 계속적인 過剩供給과 이로인한 在庫累增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穀物去來量은 침체되는 상황 속에 있었으며 거래 유형은 先進經濟圈은 輸出型으로, 그리고 그 이외의 經濟圈은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農産物輸出國이 美國, EC 등 世界經濟를 주도하는 先進國이므로, 先進國間에 심화되고 있는 農産物去來를 둘러싼 무역 마찰은 國際經濟秩序에서 農産物貿易이 갖고 있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美·日間の 農産物去來를 둘러싼 양측 주장의 검토는 우리 농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일본 측에 대한 國內 農産物市場 開放 요구와 일본 측이 대처해 온 方法을 재음미해 보는 것은 매우 時期適切한 일일 것이다. 日本이 美國의 農産物市場開放 요구에 대처한 근본적 이유는 國際收支의 均衡問題였으며, 그리고 高度成長期를 거치면서 貿易黑字를 기록한 이후부터는 農家の 所得源保護였다. 높은 수준의 價格支持 제도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農業基本法의 주요 목표인 所得目標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農産物 價格의 상승을 통하여 農業保護率의 증대를 가져 왔으며, 小農에게는 營農을 지속할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經營規模 확대 및 構造改善計劃의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됨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食品消費 구조에 부응할 生産調整의 문제에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6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供給過剩을 나타내고 있는 米穀部門의 경우 供給管理의 일환으로 畜利用再編對策 등을 통하여 대체작물의 증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밀, 옥수수, 大豆 등 代替作物의 植付로 인한 생산 증대가 輸入量에 비해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現價格 체계하에서는 米穀生産이 가장 이윤이 좋은 經濟作物이므로 代替作物의 재배를 위해서는 재정 보조의 증대를 필요로 하였다. 한편, 供給의 비탄력성 및 농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생산 조정을 위한 畜利用再編 대책이 소기의 目標를 달성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輸入割當制, 高率의 關稅 및 國營貿易의 문제와 함께 品質規制 등이 兩國間에 커다란 問題가 되고 있다. 따라서 輸入開放壓力에 대처할 日本의 기본적인 전략으로서, 生産費 절감을 위한 經營規模 확대 방안과 價格政策方向의 再調整 등을

둘 수 있다. 價格政策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支持價格의 결정시 生産性 向上分을 반영하고, 專業農의 生産費를 중심으로 價格水準을 결정하는 案이다. 따라서 향후의 價格政策은 構造改善 및 經營規模의 확대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輸入割當制를 둘러싼 문제는 점진적인 輸入割當量의 증대로 양측은 협상을 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작년 이후 貿易收支의 黑字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원貨切上 및 農産物開放 압력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가 國內農産物價格 및 生産體系, 그리고 輸入構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즉 일본과 美國間에 발생했던 農産物 去來上의 諸問題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日本 農政의 변화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성은 증대하는 것이다. 우리도 國內農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宿命論의 당위성에서 탈피하고 國內農業의 潛在的 與件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國內農業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인 농민의 소득 및 厚生福祉 향상을 위하여 國內價格을 적정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國際經濟秩序하에서 발생할지 모를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흡수되어야 하며 또한 國內農業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市場經濟의 活性化, 經營規模의 확대 노력과 함께 보호율이 높은 品目の 생산에 대해서는 營農의 합리화를 기하고, 연구 및 개발을 통한 生産性의 증대와 함께 輸入의 효율화 등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Hayami, Yujiro, "Adjustment Policies for Japanese Agriculture in a Changing World," in *U.S.-Japanese Agricultural Trade Relations*, ed. by Emery Castle and Kenzo Hemmi, Resource for the Future, 1982.
- Hemmi, Kenzo, "Agricultural Reform Efforts in Japan: Political Feasibility and Consequences for Trade with the U.S. and Thir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the U.S.-Japan Economic Agenda Conference, Chicago, 1986. 12.
- Johnson, D.G., "World Commodity Market Situation and Outlook," in *U.S. Agricultural Policy*, ed. by Bruce Gardner,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85.
- _____, "The World Food Situation: Recent and Prospective Developments," in *The Role of Markets in the World Food Economy*, ed. by D.G. Johnson and G.E. Schuh, Westview Press, 1983.
- _____, Kenzo, Hemmi and Pierre Lardinois, "Agricultural Policy and Trade: Adjusting Domestic Programs in an International Framew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5.
- Johnson, Robbin S., "The World Grain Economy and the Food Problem," in *The World Food Problem: Consensus and Conflict*, ed. by Radha Sinha, Pergamon Press, 1978.
- Labys, Walter C., "World Grain Markets: A Functional Analysis," in *The World Food Problem: Consensus and Conflict*, ed. by Radha Sinha, Pergamon Press, 1978.
- Sanderson, Fred, "Japan's Food Prospects and Polic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8.
- _____, "U.S.-Japan Negotiating Issues and Opportunities in the GATT," Paper Presented at the U.S.-Japan Economic Agenda Conference, Chicago, 1986.
- Schnittker, John, "Agricultural Reform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U.S.-Japan Economic Agenda Conference, Chicago, 1986.
- Wallerstein, Mitchel, "Food for War-Food for Peace," The MIT Press, 1980.
- Wisner, Robert and Tehereh Nourbakhsh, "World Food Trade and U.S. Agriculture, 1960~1986," The World Food Institute of Iowa State University, 1987.